

『의서옥편(醫書玉篇)』 판본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EuiseookPyeon*

김 영 경 (Kim, Lyoungkyoung)**

◁ 목 차 ▷

- | | |
|--------------------------|------------------------------|
| 1. 『의서옥편(醫書玉篇)』 판본
고찰 | 3. 『의서옥편(醫書玉篇)』 판본
비교 고찰 |
| 2. 『의서옥편(醫書玉篇)』 체재
고찰 | 4. 『의서옥편』의 한계점과 가치
<참고문헌> |

< 초 록 >

『의서옥편(醫書玉篇)』은 1921년 김홍제에 의해 지어진 자전으로, 1929년, 1944년, 1963년에 각각 재발행되었는데, 1929년·1944년 판본은 초판본과 동일한 계열의 판본이며, 1963년에 재발행된 판본은 수정 증보판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1963년 판에서 증보된 내용은 없었으므로, 1921년판본부터 1963년판본까지 모두 동일한 자종을 채택하고 있으며, 한글 혼음에 필요한 수정만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자전은 당시의 다른 자전과 마찬가지로 『전운옥편』의 214 부수 체계를 따르고 있지만, 필요에 따라 ‘\’ 등 63개의 부수를 삭제하고 151개만 채택하여, 모두 2,020개의 표제자를 수록하고 있다.

김홍제가 이 자전을 편찬한 목적은 의원들이 임상에서 쉽게 필요한 한자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므로, 수록된 자종도 한의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한자들이 대종을 차지하는데, 각 표제자마다 그 자형을 대자(大字)로 제시하고, 한글 혼과 음, 한문 석의 등을 배열하였다. 그런데 이 자전은 비슷한 시기의 다른 자전과는 달리 여러 가지 의미향과 자음(字音) 중에서 혼과 음을 하나씩만 달고, 한문 석문으로 보충 설명을 한 예가 많다는 점이 특이하다.

자종과 부수체계, 내용 구성, 석문의 내용 면에서는 초판본과 수정증보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수정증보판은 1921년의 음운현상과 표기법이 그대로 반영된 초판본을

* 이 저서는 2014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진흥사업단)을 통해 한국학 분야 토대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AKS-2014-KFR-1230003).

이 논문은 世界漢字學會第4屆年會(2016.6.24~28)에서 발표된 “『醫書玉篇』 版本研究”의 내용을 수정·증보한 것임.

** 경성대학교 한국한자연구소 학술연구교수(ling72@hanmail.net)

접수일: 2016년 6월 3일 최초심사일: 2016년 6월 14일 심사완료일: 2016년 6월 25일

수정하여 1963년의 국어에 맞도록 고쳐 펴낸 점이 다르다.

『의서옥편』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문 의학 전문사전으로 우리나라 한자 사전 발전사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으며, 홍수처럼 비슷한 자전들이 범람하던 당시의 출판 상황 속에서 전문 사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나름대로의 원칙을 세워 한자를 선별하고 목적에 걸맞은 한글훈, 한문 석문을 선정·제시하였으므로, 이러한 노력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要語: 의서옥편, 김홍제, 전문 사전, 판본 비교

<ABSTRACT>

EuiseookPyeon was made by the year kim, Hongjae in 1921, which was re-issued in 1929, 1944, and 1963. The 1929 edition and 1944 edition is the same as the first edition, but the 1963 edition is the modified edition. As the same as other dictionaries, it follows 214 radical system. In this dictionary, 63 Chinese radical, like ‘丿’, were removed and only 151 Chinese radical were adopted. As a result, 2,020 are included in this dictionary. Hun in Hangul, Tone and Interpretation were arranged in this dictionary. Differing from other dictionaries of the similar period, *EuiseookPyeon* only used Hun and Tone to interpret Chinese Characters. As far as content of the first edition and the modified edition, there is no big difference among forms, radical systems, configuration and interpretation. However, phonetic phenomenon and notation of the first edition were modified in the modified edition. As a rare medical dictionary, *EuiseookPyeon* has significant value in Korea. In order to write *EuiseookPyeon*, Author Kim, Hongjae makes efforts to select Hun in Hangul and interpretation in Chinese character, which will be appreciated.

Key words: *EuiseookPyeon*, kim Hongjae, Professional dictionary,
Comparison of texts

1. 『의서옥편(醫書玉篇)』 판본 고찰

1.1 저자 및 완성시기

『의서옥편(醫書玉篇)』¹⁾이 지어진 당시는 자전에 대한 수요가 많아 『국한문신옥편(國漢文新玉篇)』·『한선문신옥편(漢鮮文新玉篇)』·『일선대자전(日鮮大字典)』·『자림보주(字林補注)』·『자전석요(字典釋要)』 등 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자전들이 우후죽순처럼 출판되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자전의 저자나 편찬자를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동일한 내용을 편찬자와 출판사를 바꿔 가며 출간해 내는 폐단이 성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저자와 판권지 상의 저자가 약간 차이가 나기도 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의서옥편』의 저자는 김홍제(金弘濟)라는 사람이며, 1921년에 광동서국(光東書局)을 통하여 펴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1.2 출판된 판본의 종류와 판권 정보

『의서옥편』에는 판수에 관한 기록이 없어 언제 정확히 초판이 발행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현재까지 1921년 이전에 나온 판본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아 1921년 판본이 초판일 것으로 추정되며,²⁾ 그 후 1929년, 1944년, 1963년에 각각 재발행되었다. 새로이 발행될 때마다 판권지에 기입된 정보에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모아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³⁾

1) 이하 모두 『의서옥편』으로 통일한다.

2) 박형익, 『한국자전의 역사』 (서울: 도서출판 역락, 2012), 449. 본고에서는 현재까지 유일하게 『의서옥편』의 판본에 대해 연구하고 소개한 박형익(2012)의 견해에 따라 1921년 판본을 초판본으로 보고 논지를 전개해 나간다.

3) 박형익(2012), 449. 이 표는 박형익(2012)의 449쪽에 정리된 내용에 필자가 조사한 수정증보판의 판권지 내용을 첨가하여 재구성한 것이다.

<표 1> 『의서옥편』 판본 종류 및 판권 관련 정보

연번	발행시기	제목	저자명 (편저자명)	발행지	발행처
1	1921년 1월 25일 (대정 10년)	신정의서옥편 (新定醫書玉篇)	김홍제 (金弘濟)	경성	光東書局 (광동서국)
2	1929년 3월 18일 (대정 18년)	신정의서옥편 (新定醫書玉篇)	김홍제 (金弘濟)	경성	동양대학당 (東洋大學堂)
3	1944년 6월 15일 (소화 19년)	신정의서옥편 (新定醫書玉篇)	명문당 편집부	경성	명문당 (明文堂)
4	1963년 6월 5일	수정증보 의서옥편 (修正增補醫書玉篇)	동양 의약서적 편찬회	서울	동양의약대학서관 (東洋醫藥大學書館), 학생사(學生社)

『의서옥편』은 이처럼 세 차례에 걸쳐 재발행되었는데, 그 중 초판본으로 추정되는 1921년판과 1929년 및 1944년판은 사실상 동일한 판본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1929년판은 발행처의 변동이 있었고, 책 표지에는 김홍제가 기입된 반면, 판권지에는 송경환(宋敬煥)이 저작 겸 발행자로 등록되어 있다. 1944년 판에서는 편찬자가 김홍제 개인이 아닌 명문당 편집부에서 공동 편찬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판권지 상에는 김홍제가 김경청랑(金井淸郎)이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저작 겸 발행자로 등록되어 있다. 이처럼 1921년 판부터 1944년 판까지는 저자와 발행자, 발행처가 혼란스럽기는 하지만 내용상에는 큰 변동이 없이 이어져왔다.⁴⁾

광복 후 『의서옥편』은 동양의약서적편찬회에 의해 『수정증보 의서옥편(修正增補醫書玉篇)』이라는 이름으로 재발행되었다. 이 판본은 책의 형태정보·인쇄상태·자형속성·훈음·한문석문 등 모든 부분에서 앞선 두 판본들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4) 박형익(2012), 449-450.

2. 『의서옥편(醫書玉篇)』 체제 고찰

2.1 『의서옥편(醫書玉篇)』의 형태정보

『의서옥편』은 1963년 판본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판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초판과 같은 계열인 1944년판과 수정증보판인 1963년 판본을 대조하여 『의서옥편』의 형태정보와 구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책의 형태면에서 초판 계열의 『의서옥편』은 연활자본(鉛活字本)이며, 11.2×14.7cm 정도 크기로 휴대하기 쉽도록 되어 있는 반면 1963년 판본은 등사본이고, 크기도 13×19.4cm 정도로 조금 커졌다. 이 책이 처음 편찬되었을 때는 한의학 위주였고, 의사가 왕진을 갈 일이 많아서 휴대용 자전이 필요했겠지만, 1963년에 다시 발행되었을 때는 동양의약 관련 서적을 모아서 편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재발행이 결정되었을 뿐 굳이 작게 만들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로 보인다.

초판 계열의 『의서옥편』은 앞 겉표지 1장, 속표지 1장, 목록 4쪽, 상권 21쪽(1~21), 하권 61쪽(22~82), 판권지, 뒤 겉표지 1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서문이나 범례, 부록은 없다. 다른 자전에 비해 구성이 단순하다. 그 중 1획에서 4획까지 부수와 그 소속 한자는 상권에 배치되어 있고, 5획부터 17획 부수까지는 하권에 배열되어 있다.⁵⁾

수정증보판은 앞 겉표지 1장, 속표지 1장, 목록 4쪽, 본문 92쪽, 판권지 1장, 뒤 겉표지 1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판본과 마찬가지로 범례나 부록은 없다. 수정증보판은 앞선 판본과 달리 상하로 분권하지 않고 1획부터 17획 부수와 그 소속 한자를 차례대로 배열하였다는 것이 다르다.

이처럼 초판본 계열과 수정증보판은 판본 형태 상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책의 구성 면에서는 상당히 유사하다. 우선 초판본 계열의 판식(版式) 구성을 보자.⁶⁾ 이 판본은 매 면마다 상중하 삼단으로 나누어 한자를 배열하였다. 표제자

5) 박형익(2012), 450.

배열에 앞서 검은색 네모 속에 음각으로 부수를 밝히고, 그 옆에 표제자를 큰 글씨로 써 놓았다. 각 표제자마다 한글 훈과 독음, 한문 석의를 두 줄로 넣었는데, 삼단으로 나누어 배열하고 각 글자마다 적당한 공간을 두었을 뿐 아니라 공간 구획까지 되어 있어 가독성이 상당히 높다. 게다가 매 면의 이격마다 책 제목·부수 획수가 기록되어 있어 목록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찾고자 하는 부수의 획수를 알면 곧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여 실용성을 높였다.

수정증보판은 휴대하며 수시로 들쳐보아야 하는 용도로 쓰이지는 않지만 원 판본의 특징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초판본의 형식과 동일하게 상중하 삼단으로 나누어 한자를 배열하였다. 그러나 등사를 한 것이라 판면(版面)의 구성이 초판본 계열만큼 훌륭하지 않다.

2.2 『의서옥편(醫書玉篇)』 부수 체계 및 수록자 현황

2.2.1 『의서옥편(醫書玉篇)』 부수 체계

앞에서 밝혔듯이 『의서옥편』은 1963년 수정증보판에 이르러 형태적으로는 일련의 변화가 발생했다. 그러나 초판본 계열과 수정증보판 계열은 부수체계·한자 검지방식·한글 훈·한자음·한문석문 등 본질적이면서도 큰 틀 안에서는 여전히 깊은 유사성과 연관성을 가진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초판본 계열과 수정증보판 계열의 부수체계와 수록자를 비교하여, 이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혀 『의서옥편』이 가지고 있는 자전으로서의 면면을 밝히고자 한다.

『의서옥편』은 물론 우리나라의 자전은 일반적으로 『전운옥편』을 전범으로 한다. 부수의 종류와 부수획수의 확정, 부수 배열순서, 더 나아가 각 한자를 배열하는 순서까지 일반적으로 『전운옥편』의 영향 하에 발전해왔다. 아래는 『전운옥편』과 『의서옥편』의 부수와 그 수량을 정리한 것이다.

6) 초판본 계열 판본 및 수정증보판 『의서옥편』은 [부록 1], [부록 2], [부록 3]의 이미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표 2> 『전운옥편』과 『의서옥편』 부수 체계 비교

부수 획수	전운옥편	수량	의서옥편	수량
1	丨 丿 * ㇀ * 乙 * 丿 *	6	丨 冂	2
2	二 亠 * 人 儿 * 入 * 八 * 冂 * 宀 * 冫 * 几 * 凵 刀 力 勹 匕 * 匚 * 匚 * 十 * 卜 * 卩 * 冫 * 乚 * 又	23	二 人 冂 刀 力 勹 冫 * 乚 * 又	9
3	口 凵 土 士 * 夕 * 夕 * 夕 * 大 女 子 宀 * 寸 * 小 尤 尸 巾 * 山 巛 * 工 * 巳 * 巾 干 * 彡 广 彡 * 卅 戈 * 弓 * 彡 * 彡 * 彡 *	31	口 凵 土 大 女 子 宀 小 尤 尸 山 巾 彡 广 卅	15
4	心 戈 戶 手 支 支 文 * 斗 斤 方 * 无 * 日 日 月 木 欠 止 歹 受 母 * 比 * 毛 * 氏 * 气 * 水 火 爪 父 爻 彡 片 牙 牛 犬	34	心 戈 戶 手 支 支 囧 斗 斤 日 日 月 木 欠 止 歹 受 水 火 爪 父 囧 彡 片 囧 牛 犬	27
5	玉 玄 瓜 瓦 甘 生 用 * 田 疋 * 疒 * 彡 * 白 皮 皿 目 矛 矢 石 示 内 * 禾 穴 立	23	玉 囧 瓜 瓦 甘 生 田 疒 白 皮 皿 目 矛 矢 石 示 禾 穴 立	19
6	竹 米 糸 缶 网 羊 羽 老 而 耒 耳 聿 肉 臣 * 自 至 * 白 舌 舛 * 舟 艮 * 色 * 艸 虎 虫 血 行 衣 西	29	竹 米 糸 缶 网 羊 羽 老 而 耒 耳 聿 肉 自 白 舌 囧 艸 虎 虫 血 行 衣 西	24
7	見 角 言 谷 * 豆 豕 豸 貝 * 走 足 身 車 辛 辰 * 彡 邑 酉 采 * 里 *	20	見 角 言 豆 豕 豸 貝 走 足 身 車 辛 彡 邑 酉	15
8	金 長 門 阜 隶 * 隹 雨 青 非	9	金 長 門 阜 隹 雨 青 非	8
9	面 革 韋 韭 音 頁 飛 * 風 * 食 首 香	11	面 革 韋 音 頁 囧 食 首 香	9
10	馬 骨 高 髟 門 * 囧 * 鬲 鬼	8	馬 骨 高 髟 鬲 鬼	6
11	魚 鳥 鹵 鹿 麥 麻	6	魚 鳥 鹵 鹿 麥 麻	6
12	黃 黍 黑 滂 * 睪	5	黃 黍 黑 睪 囧	5
13	鼎 鼓 鼠	3	鼓	1
14	鼻 齊 *	2	鼠 鼻	2
15	齒	1	齒	1
16	龍	1	龍	1
17	龜 龜 *	2	龜	1
	총합	214	총합	151

위의 표를 종합해보면 『의서옥편』 역시 비슷한 시기의 다른 자전과 마찬가지로 『전운옥편』의 부수 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서옥편』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필요한 한자를 선별하였기에 수록자가 없는 부수는 과감하게 삭제하였다. 따라서 214개의 『전운옥편』 부수 중에서 ‘丶’·‘ノ’·

‘乙’ 등 63개의 부수를 삭제하고 151개만 채택하였다.⁷⁾

『의서옥편』의 부수목록에는 채택한 부수를 획수별로 모아두었는데, 실제 사용된 부수와 목록상의 부수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표에서 네모 속에 들어있는 ‘𠂔’·‘𠂔’·‘𠂔’·‘𠂔’·‘𠂔’·‘𠂔’ 등은 목록에는 없지만 실제로는 부수로 활용되고 있다.⁸⁾

또한 부수의 순서와 필획 수에도 약간의 조정을 하여, 『전운옥편』에서는 13획에 포함된 ‘鼎’부를 12획에 넣었고, 13획에 있었던 ‘鼠’부를 14획으로 옮겼다. 부수의 순서에서도 대부분은 『전운옥편』과 동일하나 9획의 ‘韭’부를 ‘韋’부와 ‘音’부 사이가 아닌 ‘貢’부와 ‘食’부 사이에 두었다는 것이 다르다.⁹⁾

2.2.2 『의서옥편(醫書玉篇)』 수록자 현황

『의서옥편』은 의서에 자주 나오는 어려운 한자를 찾아볼 때 도움을 주기 위해 편찬된 특수사전이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병명·병증·약초명 등과 관련된 한자가 아니고 일반적인 의미범주의 한자라도 의서에 자주 출현하는 글자들이면 이를 수록하고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의서옥편』의 초판본부터 1944년 판본까지는 동일한 판본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리고 1963년에 재발행된 『수정증보 의서옥편』은 서명대로라면 지어진 연대가 비교적 오래된 앞 판본의 내용을 충실히 수정하고 부족한 부분을 증보했으리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러나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서명과는 달리 자종과 수록자 수량에 있어서는 전혀 새로 증보된 것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다. 따라서 『의서옥편』의 자종은 모든 판본이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의서옥편』 151부수에 포함된 한자의 수량은 총 2,020¹⁰⁾이며, 상세한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다.

7) 『의서옥편』이 채택하지 않은 부수는 표에서 *로 표시된 것들이며, 도합 63개이다.

8) 박형익(2012), 450. 박형익(2012)에는 𠂔도 포함되어 있으나 필자의 조사에 따르면 목록에 들어가 있으므로 삭제하였다.

9) 박형익(2012), 449.

10) 박형익(2012)은 1,934자라고 하였으나, 필자가 구축한 『의서옥편』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0자가 수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3> 『의서옥편』 부수 체계 및 표제자 총목록

부수 연번	부수	초판본 계열	수정 증보판	부수 연번	부수	초판본 계열	수정 증보판
1	丨	2	2	77	网	6	6
2	丿	1	1	78	羊	8	8
3	二	1	1	79	羽	8	8
4	人	8	8	80	老	5	5
5	冂	2	2	81	而	3	3
6	刀	6	6	82	耒	4	4
7	力	5	5	83	耳	10	10
8	勹	3	3	84	聿	3	3
9	厂	1	1	85	肉	121	121
10	厶	1	1	86	自	2	2
11	又	1	1	87	白	1	1
12	口	43	43	88	舌	4	4
13	凵	2	2	89	舟	1	1
14	土	8	8	90	艸	232	232
15	大	1	1	91	虎	1	1
16	女	7	7	92	虫	125	125
17	子	3	3	93	血	10	10
18	宀	2	2	94	行	6	6
19	小	3	3	95	衣	40	40
20	尢	3	3	96	酉	2	2
21	尸	7	7	97	見	3	3
22	山	4	4	98	角	3	3
23	巾	2	2	99	言	17	17
24	乚	1	1	100	豆	5	5
25	广	4	4	101	豕	4	4
26	升	1	1	102	豸	6	6
27	心	59	59	103	貝	13	13
28	戈	1	1	104	走	1	1
29	戶	1	1	105	足	32	32
30	手	88	88	106	身	3	3
31	支	2	2	107	車	7	7
32	攴	5	5	108	辛	3	3
33	文	1	1	109	辵	11	11
34	斗	2	2	110	邑	4	4
35	斤	1	1	111	酉	25	25
36	日	10	10	112	金	25	25
37	曰	1	1	113	長	1	1

부수 연번	부수	초판본 계열	수정 증보판	부수 연번	부수	초판본 계열	수정 증보판
38	月	2	2	114	門	10	10
39	木	61	61	115	阜	10	10
40	欠	6	6	116	佳	3	3
41	止	1	1	117	雨	5	5
42	歹	10	10	118	青	1	1
43	殳	1	1	119	非	2	2
44	水	68	68	120	面	3	3
45	火	21	21	121	革	9	9
46	爪	3	3	122	韋	3	3
47	父	3	3	123	音	1	1
48	爻	1	1	124	頁	20	20
49	冫	1	1	125	韭	2	2
50	片	1	1	126	食	31	31
51	牙	2	2	127	首	3	3
52	牛	10	10	128	香	1	1
53	犬	11	11	129	馬	1	1
54	玉	6	6	130	骨	33	33
55	玄	1	1	131	高	1	1
56	瓜	6	6	132	髟	10	10
57	瓦	11	11	133	鬲	1	1
58	甘	2	2	134	鬼	12	12
59	生	2	2	135	魚	28	28
60	田	2	2	136	鳥	30	30
61	疒	154	154	137	鹵	2	2
62	白	3	3	138	鹿	4	4
63	皮	11	11	139	麥	5	5
64	皿	11	11	140	麻	2	2
65	目	57	57	141	黃	2	2
66	矛	1	1	142	黍	2	2
67	矢	8	8	143	黑	19	19
68	石	31	31	144	黽	6	6
69	示	4	4	145	鼎	3	3
70	禾	27	27	146	鼓	1	1
71	穴	10	10	147	鼠	6	6
72	立	4	4	148	鼻	8	8
73	竹	28	28	149	齒	16	16
74	米	46	46	150	龍	1	1
75	糸	44	44	151	龜	1	1
76	缶	7	7	총수		2,020	2,020

위의 표에 따르면 『의서옥편』에 수록된 글자들이 어떠한 부수에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고, 어느 부수에 글자가 가장 적게 수록되어 있는지 등과 같은 대략적인 수록자 분포 현황을 알 수 있다. 동일한 부수에 속한 한자들은 대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범주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를 통해 『의서옥편』에 수록된 글자들의 대체적인 의미 속성을 알 수 있다. 글자 수가 가장 많은 것은 11.4%를 차지하고, 232자를 수록하고 있는 ‘艸’부이며, 그 다음이 7.6%를 차지하고 154자를 수록하고 있는 ‘疒’부이다. 3위인 ‘虫’부는 6.1%로 125자를, 4위인 ‘肉’부는 5.9%로 121자를 수록하고 있다.

‘艸’부에 속하는 한자들은 주로 쑥·지황·창포·질경이·감초·익모초·복령·고수·오미자·인삼·구리지 등과 같은 약초명과 약초의 상태(蘘, 진득할 【縻】)·약초를 다루는 법(蘸, 물에 담글 【沾】) 등에 관련된 한자가 수록되어 있다.

다음으로 많은 ‘疒’부는 주로 역질·황달·부인병·종기·이질·학질·풍병·조갈증·두창·각기·온역·두드러기 등과 같은 병명을 뜻하는 한자들과, 입비뚜러지다·손시럽다·가렵다·덥고 공기다·기운 역하다 등과 같은 병증, 병의 쾌유(瘥) 혹은 악화(瘡)와 관계된 한자들을 수록하고 있다.

‘虫’부는 주로 기생충으로 말미암은 병명(벌레 먹는 병)이나 기생충(배속벌레, 촌백충)이나 벌레(구더기, 이)나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독사 등을 뜻하는 한자와, 지네나 전갈처럼 약재로 사용할 수 있는 각종 곤충 및 짐승을 뜻하는 한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肉’부는 사지(四肢), 장기, 골격 등과 같은 신체부위나 구조를 뜻하는 한자와, 백회처럼 혈 자리를 뜻하는 한자, 비린내·배아래 살찌다·부어오르다·매스껍다처럼 몸에 나타나는 병증을 뜻하는 한자와 고기를 의미하는 한자들이 수록되어 있다.

상위 4위까지의 부수가 수록하고 있는 한자들이야말로 의서 전문 옥편의 수록자로 가장 적합한 자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한의학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부수가 수록하고 있는 한자는 모두 632글자뿐으로, 대다수의 한자들은 그것이 한의학과 관련 있는 자종인지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였다. 이에 필자는 이 자전의 모든 수록한자의 자종을 분석하고, 한의학과 연관성을 조사

하여 『의서옥편』 자종 분석표'를 작성하였는데, 일견 한의학과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한자도 한의학 용어를 구성하는 구성요소로 활용되는 글자인 등, 2,020자의 수록자 중 좀 더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일부 한자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수록자가 직간접적으로 한의학과 관련성이 있는 글자라는 사실을 밝혀내었다.¹¹⁾

2.3 『의서옥편(醫書玉篇)』 한자 해설 체제

『의서옥편』 역시 다른 자전과 마찬가지로 한자의 자형과 음,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따라서 한자 해설의 형식은 다른 자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표제자의 자형을 대자로 제시하고, 한글 훈과 음, 한문 석의 등을 놓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형식이다.

- ① 丫, 두갈녀질 【아】 物之岐頭。
- ② 尢, 다리힘스줄약할 【요】 筋弱, 舉足不隨。
- ③ 獯, 슈달 【달】 水狗, 肝葉隨月數髓, 減癥。

그러나 ④처럼 한글 훈을 달지 않고 음만 제시해놓거나 ⑤와 같이 한문 석의는 없이 표제자와 한글 훈음만 제시하는 경우도 있고, ⑥과 같이 표제자 아래 한문 석의만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 ④ 亼, 집. 以人—象三合之形。字見患門四花。
- ⑤ 椒, 산초 【조】。
- ⑥ 蠱, 雄曰毒胃, 雌曰瘡蠱。

11) 예를 들어 『의서옥편』 「木部」의 ‘杵’는 ‘절구스공이 【저】’로 한의학과 전혀 상관없는 글자로 보인다(『의서옥편』 「木部」: “杵, 절구스공이 【저】。擣穀舂杵。”). 그러나 이 글자는 오격(五隔)을 치료하는 처방인 ‘저강환(杵糠丸)’이라는 한의학 용어를 구성하는 데 활용된다. 현재 필자는 『의서옥편』 수록자의 자종(字種) 분석을 통해 이 자전이 한의학 전문자전으로서 가지는 가치를 증명하고, 여기에 수록된 2,020자를 한의학 교육용 필수한자와 대비하여 이 한자들을 현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찰하는 논문을 준비 중이다. 『의서옥편』 수록자의 자종 분석에 대한 연구결과는 향후 나오게 될 논문의 주요한 부분이라 본 논문에서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해주시길 바라는 바이다.

위에 예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서옥편』 한문 해설의 가장 큰 특징은 ‘女’부의 “孀, 숙모【심】 叔母. 아랫동서 심. 夫之弟婦.”나 ‘疒’부의 “疸, 황달【단】 黃疸. 머리부스럼【달】 頭瘡.”처럼 두 개 이상의 훈음·한문 석문을 가지고 있는 예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지금 한자 학습에서 말하는 대표훈과 대표음의 개념처럼 각 표제자의 훈과 음을 하나씩만 달아놓고, 한문 석문으로 보충 설명을 하는 예가 대종을 이룬다는 것이다.¹²⁾ 『의서옥편』은 의서에 나오는 어려운 한자의 자의를 알고 싶을 때 참고하는 특수 자전이므로, 수록 한자를 선정할 때 이미 의학과 관련된 것들을 위주로 선별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항 중에서 그 용도에 맞는 것을 가려 뽑기가 수월했을 것이다. 그리고 일단 한자의 자종과 제시해야 할 의미가 결정되면 그와 상응하는 독음이 자동적으로 결정되고, 최종적으로 의미와 음에 부합하는 한문 석의를 붙여 의미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이 책의 편찬목적과 부합하는 간결하고 실용적인 한자 해설 체계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자전으로서의 다소 자종과 해설이 간략하다는 이 책의 한계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집약적이고 실용적이다.

3. 『의서옥편(醫書玉篇)』 판본 비교 고찰

초판본 계열에 속하는 판본은 자종·한글 훈·음·한문석문이 모두 동일하다. 그러나 수정증보판은 자형속성·한글 훈·음에서 1963년 당시에 통용되던 우리말 표기법과 음운 규칙에 맞게 초판본의 내용을 수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2) 『자전석요(字典釋要)』에서는 “【감】 坎傍孔. 구덩이갓구멍 감. ○深谷嵌巖. 김흔 골짜기 감.(咸)으로, “【礙】는 “【애】 止也. 거룻길애. ○妨也. 방해로울애. ○止也. 그칠애. (除). 硤全閼通.”으로, “【초】 似茱萸而辛香. 산초 초. ○山顛椒丘. 산마르 초.(蕭). 栳 소.”으로 실고 있다. 『자전석요』의 의미항 역시 다른 자전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편임에도 두 가지 이상의 의미항을 실고 있다. 그러나 『의서옥편』은 이 세 글자에 대해 “嵌, 구덩니갓구멍【감】. 坎旁孔.”, “礙, 그칠【이】. 止也.”, “椒, 산초【초】.”와 같이 각각 하나의 의미항만을 수록하고 있다. 이 두 자전의 차이를 통해 『의서옥편』은 몇 가지의 의미항 중에서 의학과 관련을 지을 수 있는 의미항만 선택하여 수록하고자 노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형속성은 인쇄본이었던 것을 등사하면서 속자(俗字)의 특징이 은연중에 드러난 것이지만, 한글 훈과 음, 한문 석문은 편찬자가 의도적으로 수정을 한 것이다. 초판본 계열은 1921년에 지어져 표기법과 음운현상, 사용되는 낱말이 너무 예스러우므로 정확한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는 초판본 계열의 1944년 판본과 1963년 판본을 면밀히 비교하여 자형속성·한글 훈·음에 나타난 표기법, 음운 현상 등의 차이점을 밝혀내었다.

3.1 자형속성

초판본과 수정증보판을 비교한 결과 등사와 활자본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자형은 절대 다수가 동일한 속성을 지닌 정자(正字)였다. 그러나 수정증보판은 등사본이기에 가지는 차이점이 나타나는데, 한자를 필사하는 과정에서 은연중에 속자의 필사법이 드러나 일부 자형에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자형들을 모아보면 아래의 표와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20세기가 아니라 고대의 필사본 문헌에서나 나올 법한 자형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자형들의 이체 유형을 간략하게 밝히고 그 연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4> 수정증보판 표제자에 나타난 이체자와 그 유형

연번	초판본 계열	수정 증보판	이체 유형	연번	초판본 계열	수정 증보판	이체 유형
1	漿	漿	의미부증가	12	蓮	蓮	성부와혼
2	甌	甌	성부변이+동화	13	葵	葵	성부변이
3	眸	眸	성부변이	14	茵	茵	성부변이
4	眎	眎	성부변이+와혼	15	趕	趕	성부변이+동화
5	筭	筭	성부와혼	16	躡	躡	성부교체(소전)
6	繫	繫	성부변이+와혼	17	靄	靄	성부교체
7	罇	罇	의미부변이	18	酇	酇	성부변이+동화

연번	초판본 계열	수정 증보판	이체 유형	연번	초판본 계열	수정 증보판	이체 유형
8	羹	羹	부건필획생략	19	𩚑	𩚑	성부변이+동화
9	羸	羸	성부부건동화	20	𩚑	𩚑	성부와혼
10	𦏧	𦏧	의미부필획생략	21	鰓	鰓	성부변이
11	𦏧	𦏧	성부교체	22	鵝	鵝	성부와혼

우선 ‘漿(미음 장)’은 대만 교육부 『이체자사전(異體字字典)』에서도 수록하고 있지 않은 독특한 이체자형이다. 의미부 ‘水’와 소리부 ‘將’으로 이루어진 형성자 ‘漿(미음 장)’에 미음의 액체 성질을 부각하기 위해 다시 ‘水’를 첨가하여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羹(죽 갡)’은 『설문해자(說文解字)』의 소전자형 羹에서 나온 자형으로, ‘羔’와 ‘美’로 구성되었는데, ‘羔’의 ‘灬’와 ‘美’의 ‘丩’의 필획이 서로 충돌함에 따라 ‘丩’ 부건이 생략되어 형성되었다. 이러한 예는 ‘羹(『용감수감(龍龕手鑑)』)¹³⁾ 등 고대 중국의 자서에서도 수록한 바 있다. 이와 비슷하게 부건의 필획이 생략되는 예가 바로 ‘抄’인데, ‘抄(발 거듬 갈 초)’의 의미부 ‘耂’의 ‘별(丩)’획과 ‘점(點)’획이 생략되어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필사과정에서 나타난 오류인 것으로 보인다. ‘𩚑(달 릴 간)’은 이와 반대로 필요 없는 부건 ‘一’이 첨가되어 소리부인 ‘𩚑’을 ‘皇’과 비슷한 형태로 변이시켜 나온 자형이다.

이체자의 생성과정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예 중 하나가 바로 소리부를 필획이 더 간략하고 자음이 동일한 다른 한자로 교체하는 것인데, ‘𦏧(마름 해)’·‘𩚑(음력 시월 양)’·‘𩚑(맴돌 선)’ 등이 여기에 속한다. ‘𦏧’은 원래 ‘𦏧’로 썼으나 소리부인 ‘解’를 필획이 더 간단한 속자 ‘解’로 교체하여 생성된 이체자이다. ‘𩚑’은 소리부인 ‘陽’이 ‘陽’으로 교체되어 생긴 자형이다. ‘陽’과 ‘陽’은 모두 ‘余章切’이며, 특히 ‘陽’은 ‘陽’으로 통용되므로, 이 두 글자는 서로 호환될 수 있다. 따라서 ‘𩚑’은 소리부 교체를 통해 형성된 이체자라고 할 수 있다. ‘𩚑’은 의미부 ‘足’과

13) 대만 교육부 『이체자사전』, <http://dict2.variants.moe.edu.tw/variants/rbt/word_attribute.rbt>

소리부 ‘薛’로 구성되었는데,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薛’자형 대신 소전의 자형을 이어받은 ‘薛’로 소리부를 교체하여 형성된 이체자이다.

그 외 소리부나 의미부의 자형이 변이를 일으켜 생긴 이체자들이 있는데, ‘睥(눈동자 모)’·‘葵(해바라기 규)’·‘茁(자리 인)’·‘鰓(민어 퇴)’ 등이 있다. ‘睥’는 소리부인 ‘牟’를 구성하고 있는 ‘牛’의 자형이 ‘𠂔’의 형태로, ‘葵’는 ‘ㄣ’이 ‘夕’의 형태로, ‘茁’은 소리부 ‘困’이 ‘囧’이라는 과도 자형을 거쳐 ‘囧’으로, ‘鰓’은 소리부 ‘賴’의 ‘刀’와 ‘貝’ 결합이 ‘頁’로 변이되어 형성된 이체자들이다.

어떤 자형 변이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변이의 결과로 다른 자형과 동화되기도 한다. ‘𩚑’은 의미부인 ‘缶’의 마지막 획이 변이를 일으켜, ‘𠂔’자와 비슷한 형태로 동화되었다. ‘𩚑’은 소리부 ‘曾’의 ‘八’획이 형태가 비슷한 ‘人’으로 변하여 ‘曾’의 자형과 동화되었다. ‘𩚑’은 소리부 ‘干’의 ‘一’획의 길이가 짧아지고 각도가 기울어지면서, ‘下’의 자형과 동화되었다. ‘𩚑’은 ‘𠂔’의 필획이 생략되며 ‘井’과 동화되었다.

대체로 획수를 줄여 자형을 간략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체자 원리이지만 때에 따라 오히려 획수가 늘어나 자형이 복잡하게 변하기도 한다. ‘羸(파리할 리)’는 소리부 ‘羸’에 필획이 증가되어 형성된 이체자형이며, 대만 교육부 『이체자사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자형이다.

수정증보판의 자형에서 가장 의외였던 것이 바로 와혼(訛混) 현상이 그대로 반영된 자형이 다소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 ‘𩚑(눈을 자주 깜빡거리는 모양 섬)’·‘𩚑(맬 집)’·‘𩚑(마소의 구유 도)’·‘𩚑(풀이름 거)’·‘𩚑(골수 척{적, 석})’·‘𩚑(올빼미 룰{울})’ 등이 그 예이다. 와변으로 말미암아 자형이 변이되었을 뿐 아니라 비슷한 자형의 다른 한자와 혼용되는 것을 ‘와혼’이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속문헌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인데, 현대에 이러한 자형이 나타난 것은 아마도 등사한 사람의 필사 습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𩚑’은 원래 ‘𩚑’으로, ‘夾’이 형태적으로 유사한 ‘夾’과 혼용되었다. ‘𩚑’은 원래 ‘𩚑’으로 ‘執’과 ‘糸’로 구성되었다. 이 ‘執’은 ‘𩚑’(『廣碑別字·元張弘綱墓誌』)¹⁴와 같은 자형으로 변이

14) 대만 교육부 『이체자사전』, <http://dict2.variants.moe.edu.tw/variants/rbt/index.rbt?locale=zh_TW>

된 후, ‘𤇀’과 자형이 비슷해지면서 서로 혼용되곤 하였다. 이에 ‘熱’의 이체자인 ‘熱’에서처럼 ‘𤇀’과 혼용된 자형이 양산되었다.

‘𤇀’은 의미부 ‘竹’과 소리부인 ‘𣎵’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실 이 ‘𣎵(함정 함)’의 자음은 ‘함’으로 ‘𤇀’의 소리부로 볼 수 없다. 즉 ‘𣎵’은 ‘𣎵(퍼낼 요)’와 혼용된 것이다. ‘𣎵’과 ‘𣎵’의 혼용은 속문헌에서는 물론 규범자형으로 정해진 자형도 그 연원을 살펴보면 이 두 자소가 와혼된 채로 굳어진 것이 발견된 정도로 혼란 현상이다. ‘𣎵’ 역시 ‘𤇀’과 비슷한 이체 현상을 보인다. ‘𣎵’과 ‘𣎵’의 혼용 못잖게 흔히 혼용되던 자소가 바로 ‘易’과 ‘易’이다. ‘𣎵(『옥편』)’ ‘𣎵(『俗書刊誤』)’¹⁵⁾ 두 자형은 모두 ‘易’의 속자 자형이다. 한편 ‘易’은 또 ‘𣎵(『俗書刊誤』)’¹⁶⁾처럼 변형되어 두 글자간의 자형 변별성이 현저히 약화되어 버렸다. 이에 따라 이체자, 특히 속자에서 이 두 자소의 혼용이 특별히 심화되었다. 같은 맥락으로 ‘𣎵’의 소리부인 ‘易(별 양)’은 사실 ‘易(바꿀 역)’과 와혼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𣎵’은 소리부 ‘𣎵’과 의미부 ‘艸’가 결합된 자형인데, ‘𣎵’은 사실 ‘𣎵’의 소리부 ‘𣎵’의 자형이 ‘𣎵(『重訂直音篇』)’¹⁷⁾라는 과도 자형을 거쳐 ‘𣎵(『六書正偽』)’¹⁸⁾로 변이되고, 이 자형이 다시 ‘處’의 속자로도 활용되어 ‘𣎵’과 ‘處’가 ‘處’¹⁹⁾라는 동일한 속자 자형을 공유하게 됨에 따라 서로 혼용되어 생겨난 이체자이다.

‘𣎵’은 소리부 ‘栗(조 속)’과 의미부 ‘鳥’가 결합된 자형이다. 그러나 이 글자의 독음 ‘물’로 보았을 때 소리부 ‘栗’은 ‘栗’과 와혼된 것이 분명하다.

위와 같이 『의서옥편』에 나타난 이체자의 자형 변천과정과 이체 유형을 분석해 본 결과, 수정증보판의 한자 자형이 오히려 초판본 계열의 한자자형보다 속자(이체자)를 더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비규범적인 특징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5) 대만 교육부 『이체자사전』, <http://dict2.variants.moe.edu.tw/variants/rbt/index.rbt?locale=zh_TW>

16) 상동.

17) 상동.

18) 상동.

19) 상동.

3.2 국어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

개화기 시대 우리 국어의 표기법은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초판본 『의서옥편』에는 1921년 당시의 어지러운 표기법이 여실하게 녹아있고, 이는 동일한 판본인 1929년과 1944년 판본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그러나 4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1963년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초판본 계열 『의서옥편』은 상당히 이질적으로 보였을 것이다. 개화기의 혼란스러운 표기법은 일제의 ‘언문철자법(1930년)’과 조선 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년)’ 등을 통해 서서히 정립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혼란스러웠던 당시의 표기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1940년과 1946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한글 맞춤법’으로 전면 개정한 1980년까지 세 차례 수정되어²⁰⁾ 명실상부한 한글 맞춤법 표준의 기초가 되었다. 이에 수정증보판 『의서옥편』은 시대의 변화에 역행하는 초판본 계열의 표기법을 현대의 국어 표기법에 따라 수정하였다.

3.2.1 합용병서를 각자병서 방식으로 수정

개화기 국어의 된소리 표기는 현대 국어로 넘어오는 과도기적 표기 형태를 취하는데, ‘ㅅ’계 합용병서(合用竝書)와 ‘ㅂ’계 합용병서(合用竝書)가 혼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ㅅ’계 합용병서가 우세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결국 ‘ㅅ’계 합용병서로 통일되었다.²¹⁾ 이에 따라 초판본 계열의 『의서옥편』은 주로 ‘ㅅ’·‘ㅆ’·‘ㅅㅅ’·‘ㅆㅆ’ 등과 같은 ‘ㅅ’계 합용병서로 어두 된소리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합용병서 방식도 현대로 오면서 점차 사라지게 되었고, ‘ㅅ’·‘ㅆ’·‘ㅅㅅ’·‘ㅆㅆ’ 등과 같이 각자병서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수정증보판은 이러한 표기법의 변화를 반영하여 아래의 예와 같이 모두 각자병서(各字竝書) 방식으로 수정하였다.

20) 이종현,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 前後 表記法 變化 研究: 당시 東亞日報 新聞 記事를 中心으로,”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2015), 59.

21) 신유식, “개화기 국어 표기 연구,” 『어문연구』 10집(1994. 12), 52-54.

- | | |
|-----------------------|----------------|
| ① ㄱ-ㄱ: 剜, 깎을 【완】 刻削雕. | 剜, 깎을 【완】 刻削雕. |
| ② ㅅ-ㅅ: 噴, 물뿜을 【손】 噴水. | 噴, 물뿜을 【손】 噴水. |
| ③ ㅅ-ㅅ: 墮, 떨어질 【타】 落也. | 墮, 떨어질 【타】 落也. |
| ④ ㄱ-ㄱ: 權, 쪽다리 【교】 杠也. | 權, 쪽다리 【교】 杠也. |

3.2.2 사이시옷의 정비

훈민정음이 창제된 후 사이시옷은 ㄱ, ㄷ, ㅂ, ㅅ, △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으나,²²⁾ 세조·성종 대에 이르러 ‘ㅅ’으로 단일화되었고, 이러한 전통이 근대 시기에도 계속 이어졌다. 근대시기에는 15세기로부터의 전통인 받침형·음절형·병서형에 대해 구별하고 음운론적 의식이 나타나기도 했다.²³⁾ 초판본 계열의 『의서옥편』에서도 근대시기 사이시옷 표기법이 잘 드러나 위 세 가지 유형의 사이시옷 표기가 다 나타났으나, 1963년 수정증보판에서는 음절형 사이시옷은 사라지고, 받침형 사이시옷과 병서형 사이시옷만 남았다. 그러나 병서형 사이시옷도 각자병서의 된소리 표기와 혼용되어 사실상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 구체적인 수정 양상은 아래와 같다.

◆ 음절형 사이시옷이 사라진 경우

- | | |
|----------------------|-------------------|
| ① 痛, 손ㅅ가락 병 【륜】. 指病. | 痛, 손가락 병 【륜】. 指病. |
| ② 牂, 암ㅅ양 【장】. 牝羊. | 牂, 암양 【장】. 牝羊. |

◆ 음절형 사이시옷이 받침형으로 변화된 경우

- | | |
|---------------------|------------------|
| ① 砥, 수ㅅ돌 【지】. 磨石. | 砥, 솟돌 【지】. 磨石. |
| ② 礎, 주초ㅅ돌 【초】. 柱下石. | 礎, 주춧돌 【초】. 柱下石. |

◆ 병서형 사이시옷이 각자병서로 표기된 경우

- | | |
|-------------------|-----------------|
| ① 梢, 나무ㅅ 【소】. 木杪. | 梢, 나무꽃 【소】. 木杪. |
| ② 杪, 나무ㅅ 【초】. 木末. | 杪, 나무꽃 【초】. 木末. |

22) 우형식, “사이시옷 표기의 변천,” 『외국어문학논집』 제9집(1993), 132.

23) 우형식(1993), 162.

3.2.3 구개음화의 반영

우리말은 근대 국어 시기에 들어 /i/, /j/ 앞의 ‘ㄷ’·‘ㅌ’·‘ㄸ’가 ‘ㅈ’·‘ㅊ’·‘ㅉ’로 변하는 구개음화가 일어났다.²⁴⁾ 그러나 1921년 초판본이 나올 때에도 표기법 상에서는 구개음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그러나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더’·‘뎡’·‘듀’·‘디’·‘데’의 자음은 ‘저’·‘조’·‘주’·‘지’·‘제’로 적는다고 명시하는 등 구개음화된 자음의 표기가 현대와 다름없이 변화되었다. 이에 따라 수정증보판에서는 구개음화된 자음의 표기를 아래의 예와 같이 수정하였다.

- | | | |
|-------|----------------|----------------|
| ① 뎡-조 | 挑, 도들 【뎡】撥也. | 挑, 돈을 【조】撥也. |
| ② 디-지 | 飴, 할뜰 【디】以舌取物. | 飴, 할을 【지】以舌取物. |
| ③ 테-채 | 替, 대신할 【테】代也. | 替, 대신할 【채】代也. |
| ④ 테-체 | 剃, 털깎글 【테】剪髮. | 剃, 털깎을 【체】剪髮. |
| ⑤ 뎡-초 | 貂, 돈피 【뎡】鼠屬. | 貂, 돈피 【초】鼠屬. |

3.2.4 종성표기의 변화 적용

개화기 국어 표기에서 종성표기는 음절말 자음에 ‘ㄱ’·‘ㄷ’·‘ㄹ’·‘ㅁ’·‘ㅂ’·‘ㅅ’·‘ㅇ’과 어말에 겹글자 ‘ㄷ’·‘래’·‘래’·‘ㄹ’가 사용되었다. 즉 ‘ㄱ’·‘ㄷ’·‘ㄹ’이 ‘ㄱ’으로, ‘ㅂ’·‘ㅅ’·‘ㅇ’이 ‘ㅂ’으로 표기되고, ‘ㄷ’·‘ㄹ’·‘ㅁ’·‘ㅇ’의 종성 표기는 현행표기법과 거의 같았다. 그리고 ‘ㄷ’·‘ㅌ’·‘ㅈ’·‘ㅊ’은 ‘ㅅ’으로 표기되었다.²⁵⁾ 초판본 계열의 『의서옥편』에서도 이러한 맥락의 표기법이 여전히 통용되고 있는데, 수정증보판에서는 아래의 예와 같이 현행 표기법과 동일한 종성표기 규칙을 적용하여 수정하였다.

24) 전광현, “근대 국어 음운,”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2집(1997), 36.

25) 신유식(1994), 55-60.

① ㄱ-ㄱ	剡, 깎을 【완】. 刻削雕.	剡, 깎을 【완】. 刻削雕.
② ㅅ-ㅅ	陟, 높을 【두】. 峻也.	陟, 높을 【두】. 峻也.
③ ㅅ-ㄷ	姊, 맞추위 【자】. 女兄.	姊, 맞추이 【자】. 女兄.
④ ㅅ-ㅅ	哮, 돛이놀란소리 【호】. 豕驚聲.	哮, 돛놀란 소리 【호】. 豕驚聲.
⑤ ㅅ-ㅅ	漚, 젓 【둥】. 乳汁.	漚, 젓 【둥】. 乳汁.
⑥ ㅅ-ㅅ	從, 좇칠 【중】. 從同.	從, 좇을 【중】. 從同.

3.2.5 ‘·’ 계열 모음의 소실 반영

‘·’ 모음은 15세기에는 온전하게 잘 사용되었으나, 16세기에 들어 비어두 음절(非語頭音節)에서 ‘ㅡ’·‘ㅏ’·‘ㅑ’ 등으로 변화하는 현상이 완성되고, 18세기 들어 어두 음절(語頭音節)에서의 변화도 완성되는 등 점점 그 음가가 소멸되어 왔다.²⁶⁾ 그 후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는 ‘·’의 폐기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초판본 계열의 『의서옥편』은 이미 음가가 사라진 ‘·’와 ‘·’ 계열의 이중모음인 ‘ㅑ’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수정증보판은 이를 현대국어에 맞게 수정하였다.

① ㄴ-ㄴ	泉, 씨엿는삼 【시】 牡麻.	泉, 씨없는 삼 【시】 牡麻.
② ㅎ-하	惕, 근심하고 두려워할 【턱】 憂懼.	惕, 근심하고 두려워할 【적】
③ ㄴ-넌	恚, 성넌 【에】 恨怒.	恚, 성넌 【에】 恨怒.
④ ㅅ-생	戀, 생각할 【런】 眷念.	戀, 생각할 【런】 眷念.

3.2.6 예스러운 표현을 현대국어로 수정

초판본 계열의 『의서옥편』에는 현대 국어에서는 잘 쓰지 않는 ‘오적어(오징어)’나 ‘은옥헌(은숙한)’과 같은 문어체 식 어휘와 ‘버힐(벨)’처럼 형태적으로 여전히 현대 국어와는 다른 모습을 간직한 예스러운 낱말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 수정

26) 신유식(1994), 70-71.

증보판에서는 아래의 예와 같이 이러한 어휘를 현대 국어로 수정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 | |
|------------------------|----------------------|
| ① 割, 버힐【할】截也. | 割, 벨【할】截也. |
| ② 撒, 흩터달【살】散也. | 撒, 흩어질【살】散也. |
| ③ 交, 은유흔 곳【오】隱暗處. | 交, 은숙한 곳【오】隱暗處. |
| ④ 魍, 산독잡이【망】山鬼, 一脚. | 魍, 산도깨비【랑】山鬼一脚. |
| ⑤ 魮, 오적어【즉】口中有黑, 一名墨魚. | 魮, 오징어【즉】口中有黑, 一名墨魚. |
| ⑥ 魮, 코우휘부프를【차】鼻上炮. | 魮, 코위부프를【차】鼻上炮. |

4. 『의서옥편』의 한계점과 가치

박형익(2012)에 따르면 『의서옥편』은 최초의 특수 한자 자전으로 우리나라 한자 자전 발전사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 또한 휴대하기 편한 크기로 책을 만든 아이디어 역시 대단히 독특한 것으로 다른 자전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라고 하였다.²⁷⁾ 그러나 다른 자전에 비해 수록된 한자 수량이 너무 적고 한글 훈이 하나씩밖에 기입되지 않아서 다양한 자종과 의미항을 검색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 자전에 수록된 2,020개의 한자는 심층 분석을 통해 한의학과 관련성을 밝혀내야 하는 일부 한자를 제외하면 모두 한의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한자이자, 의서에서 상용되는 한자이다. 비록 자종이 적고 의미항이 단순하기는 하지만 한의학에 특화된 자종을 효율적이고 집약적으로 모았을 뿐 아니라,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실용성과 뛰어난 가독성까지 겸비하였으므로, 의학전문 자전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의서옥편』은 ‘의학 특수 자전으로서의 집약성과 실용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어떤 대형 자전보다도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홍수처럼 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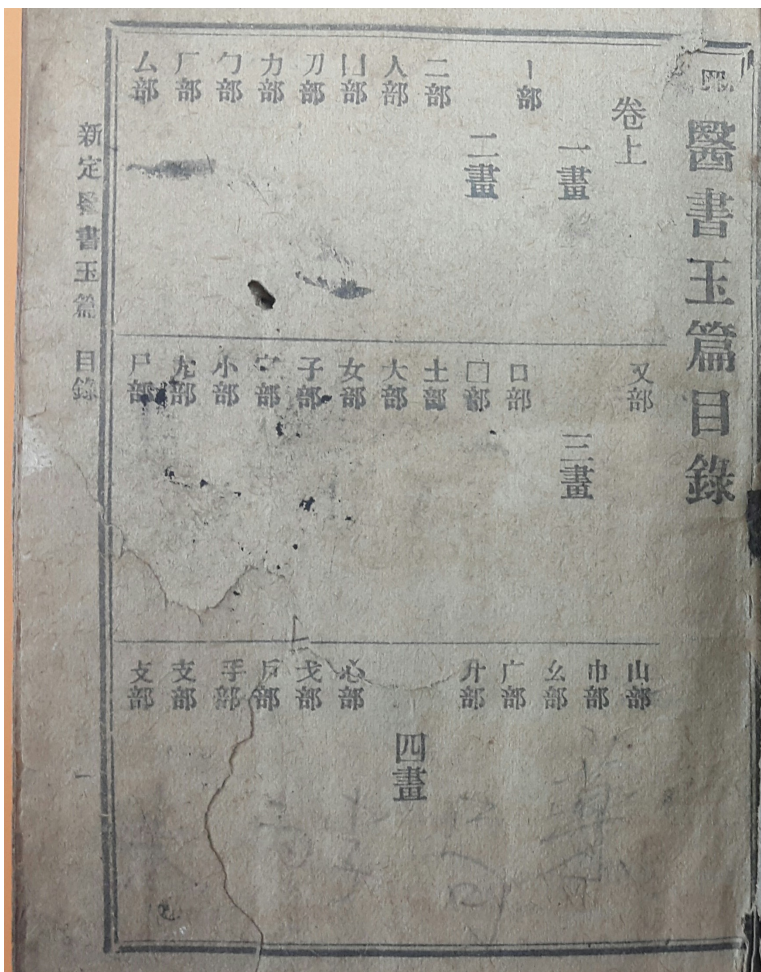
27) 박형익(2012), 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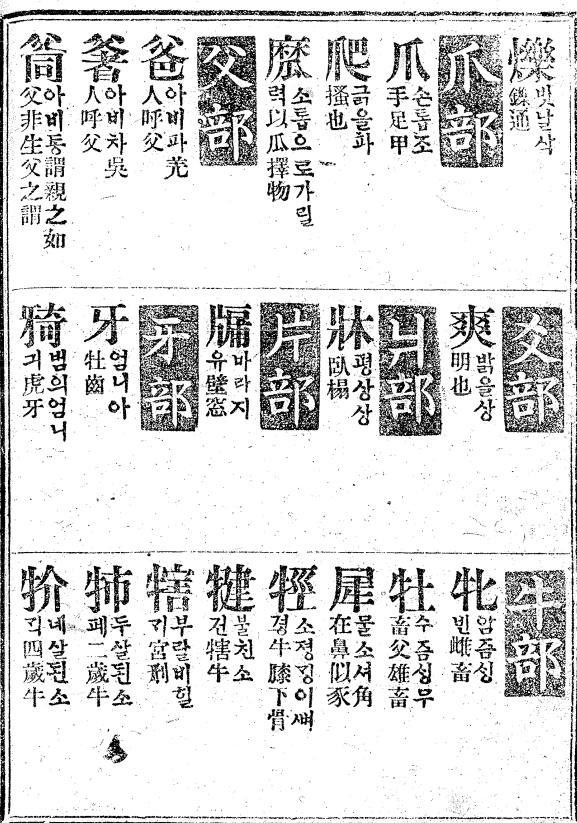
한 자전들이 범람하던 당시의 출판 상황 속에서 전문 자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나름대로의 원칙으로 한자를 선별하고 목적에 걸맞은 한글 훈음, 한문 석문을 선정하고 제시한 『의서옥편』의 가치는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홍제. 『신정의서옥편』. 서울: 光東書局, 1921.
- 김홍제. 『신정의서옥편』. 서울: 명문당, 1944.
- 미상. 『전운옥편』. 미상.
- 박형익. 『한국 자전의 역사』. 서울: 도서출판 역락, 2012. 11.
- 신유식. “개화기 국어 표기 연구.” 『어문논집』 제10집(1994). 45-79.
- 신승용. “이중모음의 정의와 이중모음에서의 분절음 탈락 - “wi → i ~ u”, “iy → i ~ I”를 중심으로 -. ” 『동국어문학』 제17집 · 제18집(2006). 37-59.
- 우형식. “사이시옷 표기의 변천.” 『외국어문논집』 제9집(1993). 131-164.
- 육효창. “구개음화의 일고찰.” 『동국어문학』 제17집 · 제18집(2006). 59-75.
- 이종현.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 前後 表記法 變化 研究: 당시 東亞日報 新聞 記事를 中心으로.”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2015.
- 전광현. “근대 국어 음운.”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2집(1997). 7-54.
- 대만 교육부 『이체자사전』.
- <http://dict2.variants.moe.edu.tw/variants/rbt/index.rbt?locale=zh_TW>.

[부록 1] 『신정의서옥편』 1921년판





公部	玅 豆 足 積 微	玄部	璽 号 王 者 印	瑁 海 中 樹 龜 鱗	瑚 海 中 樹	珀 脂 所 化	珊 海 中 樹
----	-----------------------	----	-----------------------	----------------------------	------------------	------------------	------------------

瓜 오과 蔓生 瓜辰日種	匏 보 五司 爲飲器	瓠 호 五司 瓢也	蒹 간 五司 名指蔓	瓠 호 五司 名指蔓	瓜 오과 蔓生 瓜辰日種
--------------------------------	------------------------------	-----------------------------	------------------------------	------------------------------	--------------------------------

甌	甌	甌	甌	甌	甌	甌
시루조 屬炊器	사발 盃也	우물 우물 우물 甌	병 병 병 甌	오지그릇 瓦器 甌	우물 甌	우물 甌